

“전북특별자치도법 조속 통과를”

“지역경제 위기 극복 위해 꼭 필요”... 도의회 특위, 국회 법사위 찾아 박범계 의원 등에 건의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수)가 5일 국회를 방문해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법제사업위원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 방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법사위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김희수 위원장, 영영선 부위원장, 박정희 위원이 동행했으며, 법사위 소속 박범계·박주민 위원 등을 면담했다.

김희수 위원장은 박범계 위원과의 면담에서 “전북이 처해 있는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며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김희수·영영선·박정희 의원은 “180만 도민의 염원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몇 번이고 국회를 찾아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의회 특별자치도 추진지원특별위원회는 지난 제894회(2022년 9월) 정례회를 기점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지난 10월에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회차원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이체익 위원장과 유석조 수석전문위원, 도내에 연고지를 둔 정운천, 한병도, 이은호, 안호영, 양경숙 국회의원, 법제사업위원회 소속 박범계 국회의원 등을 면담하며 법안 통과 협조를 부탁하는 등 열정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김경수 기자

농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

권요안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도의회 통과

질소질비료 절감·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지원 규정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 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8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업 분야(비에너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기준 2,100만톤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7억100만톤)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통해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70% 이상을 2030년까지 감축하기로 하고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질소비료 사용량 절감 등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도내에서도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해당 조례안에는 전북도가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중합계획을 마련·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질소질비료 절감 사업, 신재생에너지 활용 사업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시행하고, 도내 자치단체·농업 및 에너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권요안 의원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도내에서도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해당 조례안에는 전북도가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중합계획을 마련·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질소질비료 절감 사업, 신재생에너지 활용 사업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시행하고, 도내 자치단체·농업 및 에너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권요안 의원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원칙 없고, 사회적 갈등 촉발”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의원들은 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의 시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 예산 편성이 갈등을 유발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의원들은 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의 시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 예산 편성이 갈등을 유발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영영선 도의원, 전북도 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감사패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영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이 지난 2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린 '2022 전라북도 소상공인 날 기념식'에서 전라북도소상공인연합회(회장 전안근)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전담식에서 전라북도소상공인연합회 측은 “평소 영영선 의원의 투철한 사명감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왔고,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여한 바가 크기에 감사패를 전달하게 되었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영영선 의원은 “소상공인이 잘 사는 지역이 미래를 선도한다 라는 마음으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패까지 받으니 큰 감사함과 기쁨을 느낀다”라며, “오늘 감사패 수여의 의미를 되새겨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경수 기자

“국힘, 면담 요청 알면서도 응하지 않아”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체 준비모임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으로 구성된 협의체 준비모임이 최근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와의 면담을 진행한 가운데, 면담에 불참한 여당 위원들이 유가족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칭) 준비모임은 5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이 유가족들과의 소통을 위한 어떠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 측은 “지난 1일 국조특위 여당 위원들 전원이 유가족들이 요청한 면담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일부 여당 위원은 유가족 측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기 때문에 참여를 못 했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대리인을 통해 야3당뿐만 아니라 여당 간사에게까지 면담을 요청했고, 면담요청서를 수신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국조특위 여당 위원들은 유가족들이 면담 요청을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국민경제 양극화·불평등 해소, 우리의 시대정신”

김경민 전북역사문화교육원 대표, 국힘 전주를 재선거 출마 선언

김경민 전북역사문화교육원 대표가 5일 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힘 전주를 재선거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전주를 지역은 이상직 전 의원(무소속)이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면서 내년 4월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김경민 대표는 “지난 전주시장 선거

에서 보수 정당 사상 최다 득표율을 보여준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전주의 미래를 위해 전주가 변해야 한다. 자신의 의정활동 목표의 핵심은 국민경제의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로 이는 아직도 우리의 시대정신이자 해결과제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대표는 공약으로 △전주를 디지털 플랫폼 핵심도시로 만들어 청년 일자리 10만 개 창출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통한 국제 금융도시 건설 △교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천안에서 세종, 전주로 이어지는 ktx직선화와 전주역 통합역사 추진 △명품 역사문화 관광과 교육 전문도시 건설 △전주·완주 통합 등을 거론했다.

정운천 도당위원장의 전주를 출마와 관련 “정운천 의원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출마를 위해서는 비례의원 사퇴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기에 정운천은 중앙에 진출하고 자신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나서서 것이 자신의 당과 전주를 위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김경민 전북역사문화교육원 대표가 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주를 재선거 국회의원 출마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진보당 전북도당, “유례없는 쌀값 폭락... 농민재난지원금 지급을”

“농업만큼은 식량 주권 차원에서 다가가자”

진보당 전북도당은 5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유례없는 쌀값 폭락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며, 전라북도의 순세계잉여금 4,000억원을 사용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달라고 주장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농도라고 하는 전북에서 처참하게 농민들이 외면받고 있다. 농민들은 내년에 농사짓고 싶어서 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농업을 유지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다”며 “예산이 부족하다.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시선에서 농업만큼은 식량 주권 차원에서 다가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오 의원은 “전북도에는 순세계잉여금 4,000억원이 있다”며 “순세계잉여금은 집행부가 필요할 때 쓰는 예산

으로 순창에서는 50만원, 김제에서는 100만원 등의 재난지원금 선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밥을 굶을 상황이다”며 “농상경위 의원들이 뜻을 모아준 재난지원금 지급이 모든 농민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며 “자신들은 이번 주가 마지막 투쟁의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요구하고 있는 농민 재난지원금이 지워질 수 있도록 싸울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대중 전농전북도연맹 의장과 오은미 도의원이 쌀값 대책 마련과 농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며 15일째 농성과 5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 /김경수 기자

www.sgcenergy.co.kr

자원순환형 에너지가 만드는 지속 가능한 세상

Sustain Grow Change

SGC에너지는 고품질의 증기 및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친환경 종합에너지 기업'입니다.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 바이오매스 에너지 확대, 탄소제로를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수소연료전지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밸류 체인(Value Chain)을 구축하여 'Clean Energy'를 제공하는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ESG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Sustain) 성장(Grow)과 변화(Change)를 이룰 것입니다.

SGC 에너지